야산 배밭에서 시작된 예술 원도심 중심에 뿌리 내리다



'오픈스페이스 배' 2층 전시장.

시각예술 중심 현대미술 대안공간 '오픈스페이스 배'
신산고난했던 유랑 끝내고 동광동에 새 보금자리
20년 내공 전시·레지던스·아카이브 갖춘 예술거점

새로운 키 찾아 원도심에 닻 내리다

중국 송나라의 시인 구양수가 말했다.

'시궁이후공(詩窮而後工) 시능궁인(詩能窮人)'. 궁핍한 환경이 시인으로 하여금 시를 잘 쓰게 하고, 또한 시를 쓰는 행위가 시인을 궁핍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 말은 지금 시대에도 딱 들어맞는 말이다. 또한 여기서 시를 예술로 환치시켜 읽어도 딱 들어맞는다.

예술가로 사는 것은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길이다. 가난이 친구처럼 옆에 있어 예술가를 좌절과 절망으로 몰아붙이기도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예술가는 그 좌절과 절망을 통해 창작의 영감을 받고 혼을 불태우게 된다. 거기에는 사심이 끼어들지 않는다. 오로지 진실을 추구하는 영혼이 있고, 그 힘은 예술을 비로소 예술이게 하기도 한다.

미술가들을 위한 전시 공간 겸 창작 공간을 운영하는 비영리단체 '오픈스페이스 배'(중구 동광길 43)가 걸어온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술가의 길'을 걷는다는 것의 의미를 생각했다.

2000년, 부산의 젊은 미술가, 특히 시각예술 중심의 작가들은 새롭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떠올린다. 마음껏 창작 의지를 불태울 수 있는 곳, 실험 정신 가득한 작품도 눈치 보지 않고 전시할 수 있는 곳을 만들자고 의기투합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런 공간을 찾아 나섰고, 틀을 벗어난 번뜩이는 생각은 힘을 발휘했다.

예술가들이 모여드는 도시를 오히려 벗어났다. 빌딩이나 건축도 탈피했다. 그들이 택한 곳은 한적한 농촌마을의 축사와 농막이었다. 작업과 전시, 그리고 생활까지 할 수 있는 환경에서 열악함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다. 함께 참여한 작가의 고향 마을이기도 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기존의 전시장 개념을 깨뜨리고, 현대미술의 그 어떤 실험도 수용한다는 생각은 이념이 되었다. 농막과 축사는 젊은 예술가들에 의해 그 자체로 예술품이 되었다. 30대 중후반의 작가 10여 명은 '아트 인 오리'(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오리의 지명에서 따옴)라는 예술 창작 공간이자 공동체를 그렇게 탄생시켰고, 이는 지금의 오픈스페이스 배의 전신이 됐다.

2006년, 서상호 대표를 비롯한 10여 명의 작가들은 아트 인 오리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장소를 물색했다. 보다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운 곳을 찾았다. 그래야 오래 지속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던 중 서 대표의 지인이 자신의 배밭에 창고가 하나 있는데, 그곳에서 대안예술공간을 운영해보는 것은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했다. 비포장도로에 묘지가 가까이 있을 만큼 외진 곳이었다. 부산시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에 있는 약 14만8천760㎡(4만 5천여 평)의 너른 배밭에 낡은 창고 하나. 그곳에 자리를 잡고 오픈스페이스 배라는 이름을 붙였다.

가난한 청년작가들이 만든 창작 해방구

배밭에서 시작했으니 배(pear)의 의미로, 예술의 드넓은 바다를 항해하는 의미에서 배(ship), 발전하고 증가하는 의미에서의 배(double) 등 중의적 의미를 담았다. 새로운 공간(배밭)에서 이루는 구성원들이 한 배(ship)를 타고 현대미술의 발전(double)을 도모한다는 취지도 반영됐다.

작업장과 전시장을 분리해 운영하고, 작가들을 위한 레지던스를 열었다. 개인 작업을 하면서도 서로 정보와 정서를 나누고, 때로는 숙식도 할 수 있게 해 이곳은 젊은 예술가들에게 창작의 해방구가 됐다.

자유로운 창작 활동과 전시회는 물론이고, 학교를 졸업한 뒤 막 활동을 시작한 작가들에게 예술가로서 사회 활동에 필요한 교육, 전시 작가들을 위한 비평과 홍보 지원, 제작비 지원 등의 활동을 했다.

오픈스페이스 배는 순항했다. 색깔 있는 현대미술, 실험미술 작가들이 찾아들었다. 특히 지역 출신이라는 태생적 한계로 중앙 무대에서 외면받는 실력 있는 작가들이 이곳에서 마음껏